



해외기관 직접 투자 한도 대폭 확대로 자본시장 국제화 촉진

왕양비 연구원

■ 지난 4월 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는 중국 증시 직접투자 해외기관(QFII)과 해외 축적 위안화 직접투자 해외기관(RQFII)들의 투자한도를 각각 800억 달러(기존 300억 달러)와 500억 위안(기존 200억 위안)으로 대폭 인상하였음.

- QFII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)는 중국이 해외투자기관에게 부여하는 증시 위안화 투자 허가이며, 동 자격을 취득한 해외투자기관은 중국인 전용 증시인 A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.¹⁾
 - 2007년 중·미 정상회의 협의 이후 QFII 투자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임.²⁾
 - 동 자격을 취득한 해외투자기관은 중국외환관리국(SAFE)이 부여하는 투자한도까지 위안화 표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.
- RQFII(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)는 해외에서 축적한 위안화로 A주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금융기관들임.

■ 중국이 QFII와 RQFII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자본시장 국제화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성숙한 자본시장 육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.

- 금번 투자 한도 확대는 중국이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방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
1) QFII 자격이 없는 금융기관은 B주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, B주 시장은 중국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또는 홍콩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임. 2,000여개의 상장기업 중 108개 기업(2010년 기준)만이 B주를 발행하고 있음.

2) 중국외환관리국은 QFII자격 취득기관의 역량에 따라 각 금융기관별로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말까지 총 158개의 QFII 자격 취득기관들이 총 246억 달러의 투자한도를 부여받았음. 158개 기관 중 한국의 투자기관은 한국은행, 국민연금공단, 미래에셋, 삼성투신운용, 한화투자신탁운용, 산업은행, 우리은행, 한국투자신탁운용, 동양자산운용, KB자산운용, KTB자산운용 등이 있음.

-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식 귀수칭이 해외 장기투자 자본을 흡수하는 것이 금번 조치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표명함.
- 감독당국은 해외 투자기관들의 시장진입 확대로 선진 투자기법 도입과 성숙한 자본시장 육성을 기대하고 있음.
 - 중국 증시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 투기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.

(신량망, WSJ, 틴쉬, 4/9 등)